부패·금권정치 종언… 혁명적 변화의 시작

일본의 8·30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자민당의 54년간 일당 지배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 현대 정치사에 혁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정권교체가 일본은 물론 한반도는 물론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하토야마 "야스쿠니 참배 반대" 韓日 훈풍

미국 중심 벗어나 '아시아 중시' 외교 펼 듯

■日 정권교체 의미와 전망

◇민주당 압승 배경=사상 유례없는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진 배경으로는 자민당 장기 집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냉전 체제였던 1955년 출범한 자민당은 반공과 경제성장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경제발전을 이뤄 왔지만, 그 과정에서 관료 의존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각종 정책이 중앙중심, 효율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빈부격차,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자민당 정권에 대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겨냥, '새로운 일본', '이번엔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도 주효했다.

자민당이 수권정당의 책임력, 경제회생을 내걸었지만 54년 자민당 체제가 결국은 국민이 아닌 관료를 중심으로 한 정치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진 것이다.

◇내정과 외교=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국내정치나 외교, 안보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54년간의 자민당 정권에서 각종 정책의 중심에 서 있던 관료들의 위상이 상당히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가 될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일본 정치의 중심을 관료에서 국민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각종 정책을 관료가 아니라 정치, 즉 민주당의 주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입각해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면에서도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민당이나 민주당 모두 미·일 동맹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등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미·일 지위협정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자민당이 대미 의존적이었다면 민주당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외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차기 총리가 될 하토야마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중국 등 아시아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일본 총리나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할 국립추도시설 건설, 아시아 공통통화 창설 등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그의 아시아 노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케네디, 알링턴 묘지 두 형 곁에 잠들다

오바마 "가장 위대한 의원" 애도

지난 25일 77세를 일기로 타계한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이 29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워싱턴 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형들인 존 F.케네디 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곁에 안장됐다.

이로써 미국의 상징적인 정치명문 케네디가(家)의 한 세대와 역동적인 미국정치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고했다.

이날 오전 보스턴에서 장례미사를 마친 뒤 항공기편으로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한 케네디 의원의 시신은 검은색 리무진 장의차에 실려 47년이나 그가 상원 의원직을 수행했던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 컨스티튜션 가(街)와 워싱턴기념탑, 링컨기념관, 포토맥 강을 거쳐 장지인 국립묘지로 운구됐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도식을 위해 운구차량이 잠시 멈추자 기다리고 있던 1천여명의 전·현직 의회 보좌관들이 박수로 케네디 의원의 운구차량과 유가족들을 맞이했으며 운구차량이 지나가는 도로 주변에는 또 다른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 케네디 의원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이에 앞서 케네디 상원의원의 장례미사가 이날 오전 보스턴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성당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

미 의장대원들이 29일(현지시각) 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의 관을 운구하고 있다. 존 F.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케네디 상원의원은 지난 25일 뇌종양으로 숨졌다.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케네디 의원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의원"이라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연합뉴스

광주시 작년 살림 1,512억 흑자

〈통합재정수지〉

세입 3조305억… 세출 2조6,296억

채무는 전년대비 2,842억원 감소

광주시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총 3조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27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천51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31일자로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세입규모 3조305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1조6천330억원, 의존재원은 1조2천247억원이고 기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1천728억원이다.

세출규모는 2조6천296억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2조6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무상환 등 재무활동비 3천582억원, 행정운영경비 2천70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의 순수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천512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는 7천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842억원 감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자체 국제화재단 해산

행안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연말까지 해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국제화 관련 업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행안부로 이관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5곳의 해외사무소도 폐지돼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21명이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으로 파견되는 등 재단 인력이 61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든다.

행안부는 1994년 이 재단이 출범한 이후 적립된 기금 419억원 중 지자체 출연분 229억원은 각 지자체로 배분해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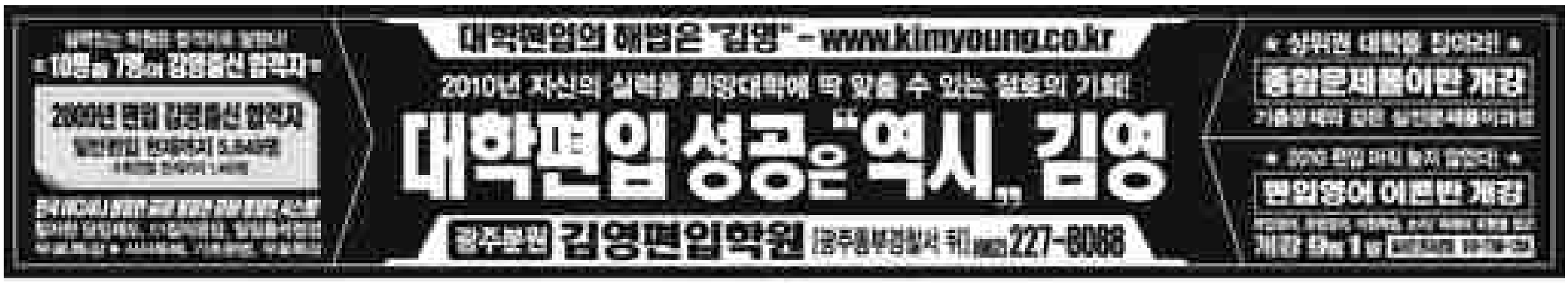
"잭슨 사망은 마취제에 의한 살인"

LA 검시소, 공식 결론

마이클 잭슨의 사인을 조사해온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시소는 28일(현지시간) 잭슨의 사망을 '살인'으로 공식 결론지었다.

검시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잭슨이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진정제의 일종인 로라제팜 투약 때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시소는 그러나 LA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잭슨에 대한 자세한 독성검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그동안 잭슨의 주치의인 콘래드 머리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프로포폴이 잭슨의 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부분에 수사를 집중했다. 머리는 경찰에서 잭슨의 불면증 치료를 약 6주간 해왔으며 매일 밤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 50㎎을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주치의 머리의 변호인은 LA 카운티 검시소가 자세한 부검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더러운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